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자산운용보고서

2018년 7월 04일 ~ 2018년 10월 03일

o 이 상품은 [주식형 펀드] 로서,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이고, 다양한 판매보수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o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Contents

- 왜 글로벌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하는가?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전망
 - 포트폴리오 운용현황
 - 펀드의 개요
 - 수익률 현황
 - 자산현황
 - 투자전문인력 현황
 - 비용현황
 - 투자자산매매내역
 -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공지사항
- <참고 - 펀드용어정리>

왜 글로벌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하는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섹터의 범위를 뛰어넘어 인간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내포하고 있는 8,000조원 이상 규모의 막대한 산업입니다. 세계 경제 여러 분야가 저성장 흐름에 접어들고 있지만, 헬스케어 시장은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앞으로 고령화 추세를 비롯해 인구구조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이머징 마켓의 국부증가, 그리고 기술혁신 등의 지속 가능한 펀더멘탈 요인들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1)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보유

- **고령화:** 인구 고령화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로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40년 후 세계 인구는 현 수준에서 약 1/3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60대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2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심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암,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년층의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그 어떤 연령대 보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가져온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고열량 식단 등 서구식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은 동서를 막론하고 비만인구의 확대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질병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 1): 60세 이상 인구 비율 및 지역 추세 (단위: 백만 명)



Source: WHO,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2015

- **기술 혁신:** 의료 기술의 발달과 혁신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기대수명이 매년 세 달씩 연장 되는 등 건강과 수명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기술의 혁신과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치명적이었던 질병들은 걸려도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높은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치료법들은 높은 가격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 받습니다. 혁신의약품들과 최소침습술과 같은, 현존 치료법 대비 더 높은 효과와 적은 부작용, 높은 치료 편의성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내는 약물과 치료방법은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진정한 혜택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반적 의료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점 유병인구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반적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은 경제성장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흥국 수요 증가:** 헬스케어 산업의 또 하나의 큰 성장 동력으로 인구당 소득의 증가로 인한 헬스케어 지출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의 경제 개혁 및 중산층 확대는 헬스케어 수요를 증대 시킬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국가별 의료제도 개혁은 헬스케어 업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하여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주목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헬스케어 산업은 높은 마진의 혁신적인 치료제와 의료기기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제공합니다. 전문 운용 팀의 분석을 통해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장기적 안목을 지닌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는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 약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MSCI World Index 기준), 혁신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서비스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기에 기술적 타이밍이 아닌 '매수 후 보유 (buy-and-hold)' 전략에 의거한 장기투자가 알맞은 산업입니다. 최근 본 산업의 펀더멘탈과 무관한 시장의 심리적 요인과 글로벌 주식 시장의 섹터순환매에 의한 과도한 가격 조정은 좋은 매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을 감안할 경우 현재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중장기적 매력도는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주가 간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PEG ratio (주가이익/성장 비율)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헬스케어 산업 내 하부 섹터들의 PEG ratio가 모두 2배를 하회하고, 일부 섹터는 1배 보다 작은 경우도 있는 반면 S&P 500지수의 경우 2.1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동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 2): 헬스케어 산업 내 하부섹터 시장 규모 및 밸류에이션

	바이오텍	제네릭	제약	의료기기	서비스
글로벌 시장 (평가 기준)	130조	150조	600조	450조	7,000조
매출 성장률	10-15%	6-8%	3%	5-6%	2-10%
P/E 2019E	14x	7x	15x	22x	15x
PEG 2019E	0.8x	1.2x	1.6x	1.6x	0.6x
S&P 500 지수					
P/E 2019E	17x				
PEG 2019E	1.4x				

출처: Sources: Bloomberg, B&B Research; PEG = PE 2019 / Earnings growth rates 2016-2020e, Data as of October 4,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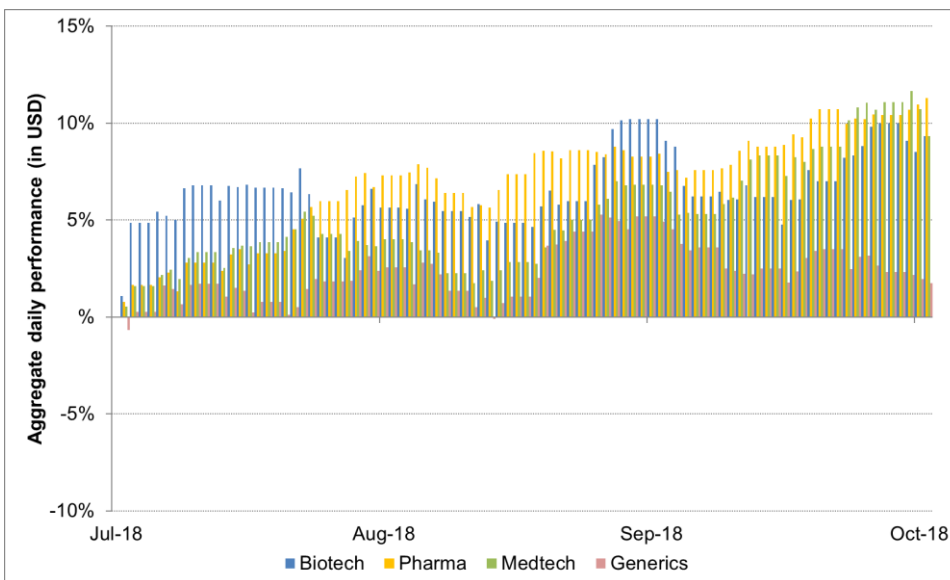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큰 비중과 더불어 성장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장기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는 필수적인 투자처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맞는 높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며 현 가격 수준은 성장성 대비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는 좋은 진입 시점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의료비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의료비를 지불하는 입장인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헷징 수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전망

2018년 3분기 중 미국 주식시장은 세계 여타 시장들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기업실적이 미-중간 무역분쟁 이슈를 잠재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견조한 숫자를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머징 마켓은 지난 분기 중 강달러와 무역분쟁 이슈들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겪었는데 이에 따라 MSCI이머징마켓지수는 MSCI세계지수대비 하회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일본 시장은 엔화약세 및 아베총리의 연임성공으로 중장기적 정책 가시성이 상당히 확보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8월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는 3분기 중 강한 기업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MSCI World Healthcare 지수는 +12.1%의 상승을 보였고, 하부섹터 중 바이오텍 (NBI) 지수는 약 +8.6% 상승에 그치며 전체 헬스케어 섹터 벤치마크의 수익률 대비 하회하였습니다. 지난 2분기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의료장비 및 서비스 섹터는 3분기 중에도 약 +11.1% 상승하였고, 제약섹터 역시 약 +11.4%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제네릭 섹터는 중국의 약가정책과 관련된 이슈로 거의 상승하지 못하며 전체 헬스케어 섹터를 크게 하회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표3): 헬스케어 내 하부섹터 별 주가 퍼포먼스



출처 : Bloomberg

바이오텍 섹터 리뷰

바이오텍 섹터는 3분기 중 전체 주식시장은 상회하고 전체 헬스케어시장은 하회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분기 중에도 글로벌 바이오텍 섹터에서는 기업들의 펀드레이징과 IPO 소식이 이어졌지만, 기대를 모았던 대형 M&A 딜들은 지난 분기 중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모은 유일한 M&A 거래 체결소식은 Alexion Pharmaceuticals의 자가면역치료제 개발기업 Syntimmune에 대한 USD 1.2bn 규모의 인수딜이었습니다. 한편, 미 FDA는 현재 미국 전역에 만연한 아편계 진통제 남용 문제에 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FDA는 아편계 진통제의 높은 중독성을 고려하여, 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 하 일지라도 아편계 진통제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개정을 위한 새로운 초안에는 바이오 신약의 특허보호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있어 전체 바이오텍 섹터에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실적발표 측면에서는 바이오텍 섹터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시장전망을 상회하는 우수한 분기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Biogen은 현재 일본의 Eisai제약과 공동진행중인 알츠하이머 임상 2상 실험 (anti-amyloid beta 항체 BAN2401)에서 나온 긍정적인 데이터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Intercept Pharmaceuticals는 동사의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인 Ocaliva의 임상에 관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였고, Tesaro는 동사의 PARP 억제제인 Zejula와 면역관문억제제 Keytruda의 폐암환자대상 병용임상에 관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및 서비스 섹터 리뷰

의료장비 및 서비스 섹터의 경우 각각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약 5% 성장한 전체 주식시장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부문의 기업들은, 진정한 혁신에 투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훌륭한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단순한 투자원칙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습니다. Dexcom, Abbott, Medtronic 과 같은 기업들의 당뇨병 모니터링 장비 판매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며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형 혈당 모니터링 시장이 중요한 전환점을 통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bott의 경우, 자사의 지속형 혈당 모니터링 장비의 2018년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중 개최된 세계 최대의 심혈관 카테터 수술 (TCT) 컨퍼런스에서도 기술혁신 의료장비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TCT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의료장비 기업 Abbott은 자사가 개발 중인 심혈관 수술용 장비 MitraClip의 임상실험에 관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소식은 유사한 임플란트 장비인 PASCAL을 개발 중인 경쟁사 Edwards Lifesciences의 주가를 큰 폭으로 동반상승시켰습니다.

한편 미국 건강보험업계의 대기업 중 하나인 Cigna가 PBM (제약도매업) 기업인 Express Scripts를 인수하는 딜에 대해 미 법무부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Cigna는 양사의 조합이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주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CVS Health와 Aetna 간의 M&A 딜 또한 승인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약유통과 건강보험업체간의 M&A 딜을 통해 이들은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상에 있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제네릭 리뷰

지난 분기 중 제약 섹터와 제네릭 섹터는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제약 섹터의 경우 전체 헬스케어시장 수익률에 약간 못 미치며 전반적으로 상승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 경향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배당이 높은 대형 제약주로 순환매가 일어나는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섹터의 영업 측면에서는, Amgen과 Novartis가 공동 개발하여 마케팅하는 편두통 예방약인 Aimovig 는 경쟁사인 Teva의 Ajovy와 Eli Lilly의 Emgality가 미국에서 판매허가를 받음으로서 새로운 경쟁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jovy와 Emgality 모두 CGRP 안타고니스트 계열 치료제이며, 양 제품 모두 FDA의 최종허가를 얻게 됨으로써 의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쟁상황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약섹터의 주가상황과는 반대로, 제네릭 및 특수제약섹터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신흥국 시장 매출이 높은 기업들일 수록 주가하락세가 높았고, 특히 중국 제약업체의 경우 일부 제약사들의 품질관리 문제와 중국정부의 약가정책 이슈로 인해 보다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 이머징 마켓 리뷰

아시아 헬스케어 섹터는 이머징 마켓을 둘러싼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중 전체주식시장을 약간 하회하는 상승세를 보였고, 이러한 안정적인 상황에는 일본의 역할이 컸습니다. 아베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총재로 3선 연임에 성공하며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의 관행에 따라 향후 3년 더 일본을 이끌게 되었고, 이는 곧 일본중앙은행의 통화확장정책이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더 높여주었습니다.

한편 이머징 마켓에서는 MSCI Emerging Market Healthcare Index가 분기중 약 소폭 하락하는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간 무역분쟁 이슈가 남아있고, 터키발 재정위기 이슈, 브라질 대선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정부는 전체 11개 도시에서 33개 의약품목을 대상으로 정부조달을 위한 시범 입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낙찰을 받기 위한 경쟁으로 약가하락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중국 제약섹터의 주가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새로운 정책은 기술개발 측면에서 앞서 있는 기업들 (예: Jiangsu Hengrui, CSPC Pharma 등)에게는 낮아진 판매단가를 매출부름 증가로 상쇄시킴으로서 시장의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입니다.

▶ 운용현황

2018년 3분기 (운용기간: 7월 4일 - 10월 3일) 중 펀드(종류A기준)는 약 5.2% 상승하였고, 동 기간 중 MSCI World Healthcare 지수는 약 12.1% 상승하였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기여도가 컸던 하위섹터는 생명과학 기술 및 서비스 섹터였고, 바이오텍, 병원 및 서비스, 그리고 특히 제약섹터의 경우는 동 분기 중 수익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Swedish Orphan, Evotec, Shandong Weigao, PRA Health Sciences 등이 펀드 수익률에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Swedish Orphan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고, 현금성 이익(EBITDA)이 시장전망치를 약 21%에서 25% 상회하는 등 우수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사의 2분기 호실적은 여러 제품군 중에서도 특히 혈우병 치료제 Alprolix 에 의한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독일계 바이오텍 기업인 Evotec은 동사의 양대 사업부인 Execute와 Innovate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며 전체 약 67%에 이르는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매우 우수한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동사는 당뇨병과 비만 치료를 위한 인슐린 대기업인 Novo Nordisk와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Shangdong Weigao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발표와 함께 중국 증권사 CICG가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며 목표가를 올리는 등 긍정적인 신호에 주가도 화답하였습니다. 기술혁신이 반영된 고품질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동사는 앞으로 중국 제약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유망 기업입니다.

연구개발 용역업체 (CRO)인 PRA Health Sciences는 자체 성장동력만으로 두자리수 성장세를 기록하는 중이고, 현재 2개의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새로 발표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RA는 2014년부터 제약사 대상 사업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약 10% 늘려왔습니다.

한편 주가 하락이 컸던 종목들로는 Medy-Tox, China TCM, CSPC Pharmaceutical, 3SBio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환경은 메디톡스와 같이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보툴리눔 독신 수출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과, 미국 측 파트너인 앨리간이 R&D 발표행사에서 동사 제품에 대해 그다지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동사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China TCM은 고성장 사업인 과립형 중의학 제품에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주사제 형태의 중의학 제품이 임상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병원 현장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는 과립형 제품과는 직접 연관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동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희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CSPC Pharmaceutical과 3SBio와 같은 중국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는 9월 초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인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약허가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후 다소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7월 중 저희는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CSPC Pharma와 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TCM)의 비중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일본계 제약사 Takeda가 주주총회에서Shire 인수에 대한 주주들의 신임을 받는데 성공하면서 인수가격 대비 현 주가의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되면서 저희도 펀드에서 Shire 주식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8월 중 저희는 중국 제약기업인 Jiangsu Hengrui의 주식을 신규 매수하였습니다. 저희 펀드로 신규 유입된 금액으로는 CSPC Pharma, 3SBIO, Shanghai Pharma, CTCM 등 중국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식과Asahi Intecc, Cigna, Supernus, Dentium, Medy-Tox 등의 주식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한편 Evotec의 주가는 저희 펀드로 편입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저희도 일부 차익실현하며 펀드내 비중을 다소 줄였습니다. 또한 9월 중 저희 펀드는 중국의 백신기업인 Chongqing Zhifei를 신규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Jiangsu Hengrui, 3SBIO, Sinopharm, Microport, Shangdong Weigao, Edwards Lifesciences, Lonza의 펀드 내 비중을 늘렸고, 보유 중인 Ambu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실현하였으며 Aurobindo에 대해서는 전량매각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펀드 포트폴리오의 세부 섹터별로는 의료장비 및 서비스 섹터가 약 2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약 21%, 바이오텍 18.4%, 생명과학 서비스 섹터 18.0%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2%로 최대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분기말의 41.6%와 대비했을 때에는 비중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 운용전망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매년 4분기는 바이오텍 섹터의 수익률이 가장 좋은 분기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열리는 정상급 학술회의들의 상당수가 4분기에 개최가 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가져다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0월 중에는 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학회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AstraZeneca와 Clovis, Tesaro가 공동 진행 중인 PARP 억제제와의 병용임상 연구결과에 시장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SMO 이후에는 SITC (The 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가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새로운 면역관문억제제들과 세포치료기술들에 관한 임상 데이터들이 기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암의 저항 메커니즘 규명과 이를 무력화시키는 기술들에 관한 연구결과들입니다. 11월 중에는 또한 AASLD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학회가 개최될 것이고, 여기서는 Alynlam의 안티센스 (antisense) 기술 등 새로운 B형 간염치료 기술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자수가 늘어가고 있는 질환인 비알콜성 지방간 (NASH) 치료기술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분야에서 투자자들은 Gilead, Intercept, Madrigal, Viking등의 기업들이 진행 중인 연구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한편 금년 12월 중에는 ASH (The 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학회의 연례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며, 혈액암과 기타 혈액질환에 대한 기존 치료기전의 향상된 버전과 새로운 기술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시장 타이밍을 노리지 않고 벤치마크 지수에 연연하지 않는, 철저히 기업 펀더멘탈에 기초한 장기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바텀업 (Bottom-Up) 투자자로서,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에서 비뚤되는 투자기회들은 그러한 철학과 전략 하에서만 제대로 포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성해 놓은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다변화 되어 있음을 본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헬스케어 전체 시장의 성장을 상회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저희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록: 혈우병 치료를 위해 커진 '녹색등'

작년에 미국시장에서의 시판허가를 획득한 이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포치료제로서 Novartis의 Kymriah와 Gilead의 Yescarta두개의 신약은 금년에 EU시장에서도 시판허가를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EU의 규제당국인 EMA는 두개의 신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2개 유형의 혈액암에 대해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첫째, 어린이와 25세 이하의 젊은 B세포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들 중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재발한 환자군. 둘째, 광범위큰B세포림프종 (DLBCL) 환자들 중 성인으로서 2개 이상의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환자군. 위 2개의 신약은 EMA가 2년전부터 혁신 신약들에 대해 허가 일정을 가속화 하기 위해 도입한 'PRIME 프로그램' 하에서 금번 시판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시장은 Kymriah와 Yescarta가 블록버스터 급의 제품이 될 것인지에 관해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2017년 말 시판허가 이래, Yescarta가 2018년 2분기 중 약 USD 698 million의 매출을 올린 반면, Kymriah는 전 분기 USD 40 million에서 USD 16 million으로 오히려 감소된 매출을 보였습니다. Novartis 의 CEO인 Vasant Narasimhan은 Kymriah의 복잡한 제조공정 때문에 생산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긴 점을 시인하였습니다.

부록: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희망

미국 바이오텍 기업인 Biogen과 일본의 파타너사인 Eisai 제약은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신약개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양사는 지난 7월 노인성 치매질환 관련 세계최대의 학회라 할 수 있는 AAIC (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단일클론항체 신약인 BAN2401의 임상실험에 관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약 18개월에 걸친 연구기간 동안 임상환자군의 질병 진행률은 약 30% 가까이 속도가 늦추어 지는 효과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가장 높은 약물투여량 (highest dose)으로 진행된 총 161명의 환자군에게서 관찰되었으며, 확정적인 효과의 입증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양사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임상 3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진행후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실험에서는 동 신약후보 물질이 대뇌에 형성되는 아밀로이드 판 (amyloid plaque)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2020년까지는 임상 3상에서 결정적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iogen의 파이프라인에는 또한 BACE 억제기전의 신약후보인 elenbecestat이 현재 2개 그룹의 임상3상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대뇌 아밀로이드 베타 형성을 현저히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통해 향후 수년 간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복수의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AstraZeneca와 Eli Lilly, Merck & Co 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에서 실패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Pfizer의 경우, 높은 리스크와 낮은 성공 가능성 때문에 기존에 진행해온 모든 퇴행성 뇌질환 관련 R&D프로젝트들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펀드의 개요



펀드위험등급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등급 저위험

펀드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B9467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		B9468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e		B9469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1		B9470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2		B9471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3		B9472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		B9475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		B9477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F		B9480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W		B9483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		B9484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2		B9486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P		B9488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		B9490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2		BT365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 증권펀드(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6.01.04
운용기간	2018.07.04 - 2018.10.03	존속기간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	메리츠자산운용	판매회사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미래대우증권 외 21개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상품의 특징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펀드는 헬스케어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력 최대규모의 헬스케어 전문운용사인 별부자산운용과 메리츠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운용하며, 전 세계의 유망한 헬스케어 기업에 장기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 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dis.fundservice.net>], 운용사 홈페이지 [www.meritzam.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명칭	항목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자산총액	18,174	23,763	30.75
	부채총액	144	244	69.94
	순자산총액	18,030	23,518	30.44
	기준가격	1,046.81	1,106.09	5.66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	기준가격	1,005.81	1,058.53	5.24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e	기준가격	1,013.36	1,067.26	5.32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1	기준가격	988.58	1,038.60	5.06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2	기준가격	1,078.52	1,133.48	5.10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3	기준가격	1,074.01	1,129.73	5.19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	기준가격	1,008.36	1,061.47	5.27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	기준가격	1,014.61	1,068.72	5.33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F	기준가격	1,038.91	1,094.92	5.39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W	기준가격	1,084.39	1,142.93	5.40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	기준가격	1,007.08	1,059.99	5.25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2	기준가격	1,028.51	1,082.67	5.27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P	기준가격	1,016.62	1,071.05	5.35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	기준가격	1,014.14	1,068.16	5.33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2	기준가격	1,075.49	1,132.84	5.33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분배금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좌)

※해당사항 없음

수익률 현황

▶ 기간수익률

(단위: %)

펀드명칭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2개월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18.07.04 ~ 18.10.03	18.04.04 ~ 18.10.03	18.01.04 ~ 18.10.03	17.10.04 ~ 18.10.03	16.10.04 ~ 18.10.03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	5.66	13.55	15.17	11.12	23.34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45)	(-10.33)	(-3.17)	(0.19)	(-7.49)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30.83	-	-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A	5.24	12.66	13.81	9.36	19.49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87)	(-11.22)	(-4.53)	(-1.57)	(-11.34)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30.83	-	-
클래스E	5.32	12.82	14.06	9.69	20.20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79)	(-11.06)	(-4.28)	(-1.24)	(-10.63)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30.83	-	-
클래스C	5.06	12.28	13.23	8.61	17.87	-	-
(비교지수대비 성과)	(-7.05)	(-11.60)	(-5.11)	(-2.32)	(-12.96)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30.83	-	-
클래스C	5.10	12.36	13.35	8.77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7.01)	(-11.52)	(-4.99)	(-2.16)	-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	-	-
클래스C	5.19	12.55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92)	(-11.33)	-	-	-	-	-
비 교 지 수	12.11	23.88	-	-	-	-	-
클래스E	5.27	12.71	13.90	9.47	19.72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84)	(-11.17)	(-4.44)	(-1.46)	(-11.11)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30.83	-	-
클래스S	5.33	12.85	14.11	9.75	20.31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78)	(-11.03)	(-4.23)	(-1.18)	(-10.52)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30.83	-	-
클래스F	5.39	12.97	14.29	9.99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72)	(-10.91)	(-4.05)	(-0.94)	-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	-	-
클래스W	5.40	12.99	14.32	10.02	20.91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71)	(-10.89)	(-4.02)	(-0.91)	(-9.92)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30.83	-	-
클래스P	5.25	12.68	13.85	9.42	19.61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86)	(-11.20)	(-4.49)	(-1.51)	(-11.22)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30.83	-	-
클래스P	5.27	12.71	13.90	9.47	19.72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84)	(-11.17)	(-4.44)	(-1.46)	(-11.11)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30.83	-	-
클래스S-P	5.35	12.89	14.17	9.83	20.51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76)	(-10.99)	(-4.17)	(-1.10)	(-10.32)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30.83	-	-
클래스P	5.33	12.84	14.09	9.72	20.27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78)	(-11.04)	(-4.25)	(-1.21)	(-10.56)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30.83	-	-
클래스P	5.33	12.85	14.10	9.74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6.78)	(-11.03)	(-4.24)	(-1.19)	-	-	-
비 교 지 수	12.11	23.88	18.34	10.93	-	-	-

▶ 추적오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 손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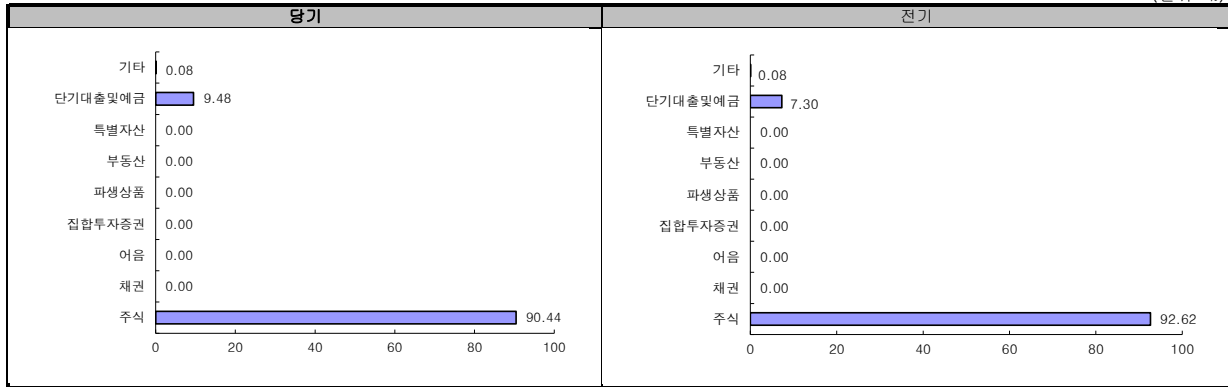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기업투자증권	장내	장외		신탁자산	기타			
전기	1,438	-	-	-	-	-	-	-	-	2	-184	1,256
당기	1,139	-	-	-	-	-	-	-	-	3	-90	1,052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63 (4.47)	-	-	-	-	-	-	-	-	1,326 (5.58)	20 (0.08)	2,408 (10.13)
AUD	546 (2.30)	-	-	-	-	-	-	-	-	-	-	546 (2.30)
804.59	(2.30)	-	-	-	-	-	-	-	-	-	-	(2.30)
BRL	355 (1.50)	-	-	-	-	-	-	-	-	-	-	355 (1.49)
278.56	(1.50)	-	-	-	-	-	-	-	-	-	-	(1.49)
CHF	1,101 (4.63)	-	-	-	-	-	-	-	-	-	-	1,101 (4.63)
1.138.15	(4.63)	-	-	-	-	-	-	-	-	-	-	(4.63)
CNY	658 (2.77)	-	-	-	0 (0.00)	-	-	-	-	63 (0.26)	-	721 (3.03)
162.94	(2.77)	-	-	-	(0.00)	-	-	-	-	(0.26)	-	(3.03)
DKK	1,930 (8.12)	-	-	-	-	-	-	-	-	-	-	1,930 (8.12)
173.12	(8.12)	-	-	-	-	-	-	-	-	-	-	(8.12)
EUR	1,030 (4.34)	-	-	-	-	-	-	-	-	-	-	1,030 (4.34)
1.290.77	(4.34)	-	-	-	-	-	-	-	-	-	-	(4.34)
HKD	3,758 (15.81)	-	-	-	-	-	-	-	-	-	-	3,758 (15.81)
142.84	(15.81)	-	-	-	-	-	-	-	-	-	-	(15.81)
INR	177 (0.75)	-	-	-	-	-	-	-	-	206 (0.87)	-	383 (1.61)
15.35	(0.75)	-	-	-	-	-	-	-	-	(0.87)	-	(1.61)
JPY	2,085 (8.78)	-	-	-	-	-	-	-	-	-	-	2,085 (8.78)
9.84	(8.78)	-	-	-	-	-	-	-	-	-	-	(8.78)
SEK	442 (1.86)	-	-	-	-	-	-	-	-	-	-	442 (1.86)
124.58	(1.86)	-	-	-	-	-	-	-	-	-	-	(1.86)
TWD	-	-	-	-	-	-	-	-	-	-	-	-
36.52	-	-	-	-	-	-	-	-	-	-	-	-
USD	8,344 (35.11)	-	-	-	-	-	-	-	-	659 (2.77)	-	9,003 (37.89)
1.119.20	(35.11)	-	-	-	-	-	-	-	-	(2.77)	-	(37.89)
합계	21,490 (90.44)	-	-	-	0 (0.00)	-	-	-	-	2,253 (9.48)	20 (0.08)	23,763 (100.00)

* (): 구성 비중

** 외화자산은 통화별로 구분하여 원화평가액을 기재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재정환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펀드는 투자대상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18.10.03) 현재 환헤지 비율	(2018.07.04 ~ 2018.10.03) 환헤지 비율	(2018.07.04 ~ 2018.10.03) 환헤지로 인한 손익
-	-	-	-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주요자산보유현황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식 - Long(매수)

(단위: 주, 백만원, %)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JAZZ PHARMACEUTICALS PLC(USD)	5,000	926	3.89	아일랜드/Others
Edwards Lifesciences Corp(USD)	4,800	918	3.86	미국/Others
ALEXION PHARMACEUTICALS INC(USD)	5,800	890	3.74	미국/Others
CIGNA Corporation(USD)	3,750	885	3.72	미국/Others
SUPERNUS PHARMACEUTICALS INC(USD)	15,700	863	3.63	미국/Others
Centene Corporation(USD)	5,300	862	3.62	미국/Others
PRA HEALTH SCIENCES INC(USD)	6,500	806	3.39	미국/Others
Celgene Corporation(USD)	8,000	805	3.38	미국/Others
LABORATORY CRP OF AMER HLDGS(USD)	3,600	699	2.94	미국/Others

▶ 주식 - Short(매도)

※해당사항 없음

▶ 채권

※해당사항 없음

▶ 어음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장외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임대)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 자금대여/차입

※해당사항 없음

▶ 특별자산

※해당사항 없음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고
예금	국민은행		1,043	1.15		-

▶ 기타자산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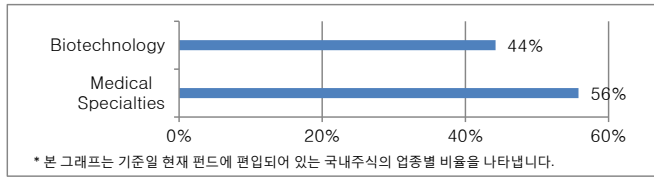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Long(매수)

(단위: 백만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Medical Specialties	593	55.80
2	Biotechnology	470	44.20
합 계		1,063	100.00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주) 업종기준은 FactSet 기준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Short(매도)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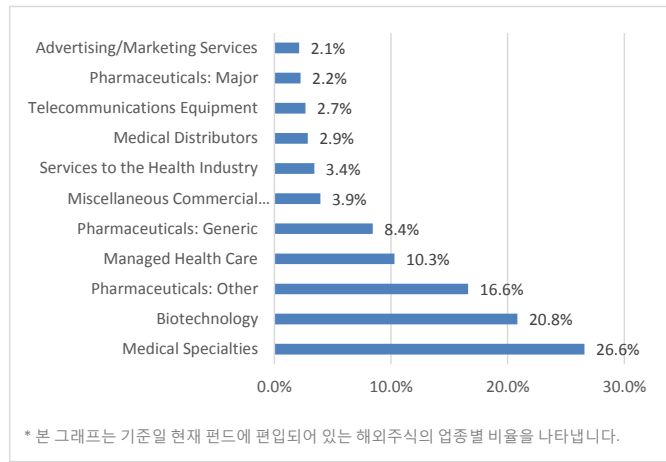
▶ 업종별(해외주식) 투자비중

(단위: 백만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Medical Specialties	5,430	26.58
2	Biotechnology	4,255	20.83
3	Pharmaceuticals: Other	3,393	16.61
4	Managed Health Care	2,103	10.29
5	Pharmaceuticals: Generic	1,723	8.44
6	Miscellaneous Commercial Services	806	3.95
7	Services to the Health Industry	699	3.42
8	Medical Distributors	584	2.86
9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546	2.67
10	Pharmaceuticals: Major	457	2.24
11	Advertising/Marketing Services	432	2.12
합 계		20,427	100.00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주) 업종기준은 FactSet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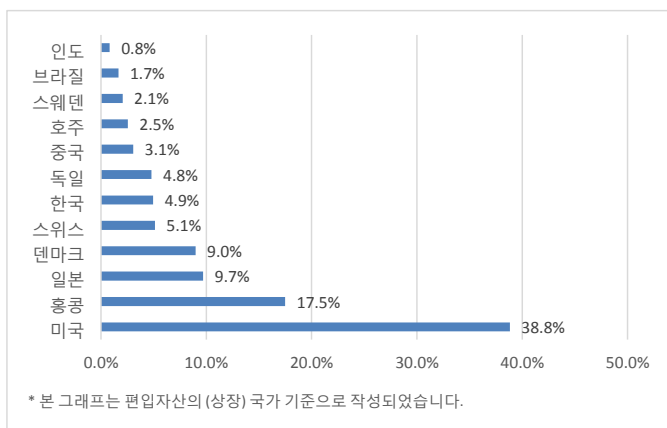
▶ 국가별 투자비중

발행(상장)국가별 투자비중

* 일부 해외종목의 경우 거래소 상장국가와 실제 발행국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비중(%)
미국	38.83
홍콩	17.49
일본	9.70
덴마크	8.98
스위스	5.12
한국	4.94
독일	4.79
중국	3.06
호주	2.54
스웨덴	2.06
브라질	1.65
인도	0.82

주) 상장된 국가별 투자비중으로 분류



투자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억원)

성명	운용개시일	직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협회등록번호
			펀드 개수	운용 규모	개수	운용 규모		
홍주연	2016.01.04	책임운용전문인력	2	118	1	14	- 매리츠자산운용 Global Investment 포트폴리오 매니저 (현재) -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주식운용 애널리스트 - 도이치투자신운용 주식운용 애널리스트 - Asian Strategic Partners 투자자문	2113000536
조창호	2018.02.26	부책임용인력	1	104	-	-	- 매리츠자산운용 Global Investment 애널리스트, 매니저 (현재)	2117000814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2)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Global Investment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관행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이 집합투자기구는 Global Investment팀의 공동운용방식으로 운용되며, 따라서 책임운용전문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이 변동되는 영향을 알려드립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구분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운용전문인력
홍주연	2016.01.04 - 2018.02.26	홍주연	-
Global Investment팀	2018.02.26 - 현재	홍주연	조창호

(주 1) 2018.10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해외 투자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운용기간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Oliver Kubli	Managing Director	2016.01.04~현재	2008년~현재 : Bellevue Asset Management AG 글로벌 헬스케어 운용팀장 / Managing Director 2001년~2007년 : Züricher Kantonalbank 선임운용역 1998년~2000년 : Swiss Re Investors 유럽 주식운용역

▶ 해외 위탁운용

해외위탁운용사	소재국가	위탁업무의 범위
Bellevue Asset Management AG [벨뷰자산운용]	Switzerland	Bellevue Asset Management AG(BAM)와 매리츠자산운용이 공동운용하는 구조임 - 펀드 운용 및 운용지시 - 리서치업무

비용현황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펀드 명칭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자산운용회사		41.06	0.24	50.41	0.24
	판매회사	종류A	8.69	0.15	9.03	0.15
		종류Ae	1.03	0.08	1.50	0.08
		종류C1	1.41	0.32	0.88	0.33
		종류C2	1.63	0.29	1.73	0.29
		종류C3	5.48	0.20	6.18	0.20
		종류Ce	1.15	0.13	1.56	0.13
		종류S	0.77	0.06	0.82	0.06
		종류CF	0.01	0.01	0.01	0.01
		종류CW	-	-	-	-
		종류C-P	1.44	0.14	1.69	0.14
		종류C-P2	2.35	0.13	2.97	0.13
		종류S-P	0.12	0.04	0.15	0.04
		종류C-Pe	0.33	0.07	0.67	0.07
		종류C-Pe2	0.20	0.06	0.93	0.06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51	0.01	1.86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86	0.01	1.06	0.01
	보수 합계		68.04	1.91	81.45	1.94
	기타비용**		1.71	0.01	2.09	0.01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9.38	0.05	7.15	0.03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00	0.00	0.05	0.00	
합계		9.38	0.05	7.20	0.03	
증권거래세		0.02	0.00	-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환산, %)

펀드 명칭	구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합계(A+B)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합계(A+B)
운용	전기	0.04	0.22	0.26	0.04	0.22	0.26
	당기	0.04	0.14	0.17	0.04	0.14	0.17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A	전기	1.61	-	1.61	1.65	0.22	1.86
	당기	1.61	-	1.61	1.64	0.13	1.78
클래스E	전기	1.31	-	1.31	1.34	0.22	1.56
	당기	1.31	-	1.31	1.35	0.14	1.48
클래스C	전기	2.30	-	2.30	2.34	0.22	2.56
	당기	2.30	-	2.30	2.34	0.14	2.48
클래스C	전기	2.15	-	2.15	2.19	0.23	2.43
	당기	2.15	-	2.15	2.19	0.13	2.33
클래스C	전기	1.81	-	1.81	1.85	0.22	2.06
	당기	1.81	-	1.81	1.84	0.14	1.98
클래스E	전기	1.50	-	1.50	1.54	0.22	1.76
	당기	1.51	-	1.51	1.55	0.14	1.68
클래스S	전기	1.26	-	1.26	1.30	0.22	1.51
	당기	1.26	-	1.26	1.29	0.14	1.43
클래스F	전기	1.03	-	1.03	1.07	0.22	1.29
	당기	1.04	-	1.04	1.07	0.14	1.21
클래스W	전기	1.00	-	1.00	1.04	0.22	1.26
	당기	1.00	-	1.00	1.04	0.14	1.18
클래스P	전기	1.56	-	1.56	1.59	0.22	1.81
	당기	1.56	-	1.56	1.59	0.14	1.73
클래스P	전기	1.51	-	1.51	1.54	0.22	1.76
	당기	1.51	-	1.51	1.54	0.14	1.68
클래스S-P	전기	1.18	-	1.18	1.21	0.22	1.43
	당기	1.18	-	1.18	1.21	0.14	1.35
클래스P	전기	1.27	-	1.27	1.31	0.21	1.53
	당기	1.28	-	1.28	1.32	0.14	1.46
클래스P	전기	1.25	-	1.25	1.29	0.19	1.48
	당기	1.26	-	1.26	1.30	0.14	1.44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주1)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해당기간	연환산
1,133,950	5,023	46,200	1,411	7.32	29.04

주1)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2017.10.04 ~ 2018.01.03	2018.01.04 ~ 2018.04.03	2018.04.04 ~ 2018.07.03
22.86	27.71	32.67

주)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

펀드명칭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2	
	투자금액	수익률
	1,000	3.99

주) 투자금액 및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전략에 따라 추가설정(환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액 및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의 자산운용회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메리츠자산운용 www.meritzam.com
 금융투자협회 <http://dis.fundservice.net>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의 제한을 받지않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판매회사	펀드의 판매, 환매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 일반사무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기준가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